농협광주본부 비닐하우스 철거 봉사활동

농협광주지역본부(본부장 정종순) 산하 농촌사랑봉사단원 40여명은 지난 28일 광주시 북구 용전동 딸기재배 농가에서 비닐하우스 철거, 주변 정화작업 등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농협광주본부 제공〉

동신대, 유기농업협 나주조합법인 발기인대회

동신대 친환경농식품산업화센터는 최근 산학협력단 5층 세미나실에서 나주 지역 친환경 영농 생산 농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한국유기농업협회 나주시 영농조합법인 발기인대회를 개최했다. 〈동신대 제공〉

신문협회 2009 한국신문상 선정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상 심사위원회(위원장 정귀호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위원장)는 취재보도 부문 수상작으로 국민일보의 '쌀소득 보전직불금 부당수령 및 낭비실태'를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기획탐사부문 수상작에는 조선일보의 '천국의 국경을 넘다'를 선정했으나 경영관리부문의 수상작은 선정하지 못했다.

시상은 다음달 6일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리는 제53회 신문의 날 기념식에서 한다. 수상자들은 부문별로 상패와 500만원의 상금을 받는다. /강필상기자 kps@kwangju.co.kr

'워낭소리' LA타임스 1면에 실렸다

독립영화 '워낭소리' 이야기가 미국 유력 일간지의 1면을 장식했다.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는 27일 1면 고정 기획기사란인 '칼럼 원(one)'을 통해 저예산 다큐멘터리 영화 '워낭소리'의 성공 스토리를 상세히 소개하고, 영화 흥행으로 유명세를 탄 영화 속 주인공들이 곤욕을 치르는 이야기를 전했다.

신문은 1면에 이어 26면까지 지면을 할애해 워낭소리가 동물에 대한 인간의 사랑과 인간에 대한 동물의 충성, 그리고 한국 농촌의 여러 가치를 담았다면서 영화 속 최원균 할아버지와 40년을 함께 해온 소의 각별한 관계는 이삼순 할머니의 질투를 살 정도로 감동적인 이야기라고 소개했다.

신문은 그러나 지난 1월 개봉된 이 영화가 인기를 끌면서 호기심에 찬 관광객들이 영화의 무대였던 산골 마을로 몰려들어 최 할아버지 내외의 조용한 생활을 위협하고 있다고 전했다.

산골 마을이 속한 경북 봉화군 주민 가운데 일부는 이 영화가 농촌생활을 너무 미화했다고 지적하고 있고, 늙은 최 할아버지 내외를 계속 일하도록 두는 자식들을 나무라는 사람들도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연합뉴스

광주에 온 '꿈의 도시 꾸리찌바 이야기' 저자 박용남 소장

"녹색성장이 대세…브라질 꾸리찌바에서 배워라"

"자전거 타기 활성화 등으로 석유사용 줄여야"

"'인구가 너무 많아 우리 도시는 힘들다. 예산이 부족해 우리 도시는 안 된다' 등의 이유는 중요하지 않다. 녹색성장을 통한 도시발전에 대한 의지가 중요하다."

지난 27일 광주시 동구청 대회의실에서 '저탄소 녹색 성장'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한 '꿈의 도시 꾸리찌바 이야기'의 저자 박용남(54) 지속가능도시연구소장은 "개발을 통한 발전만이 능사가 아니다. 저비용과 친환경, 속도감 있는 행정을 통한 브라질 지방도시의 사례에서 우리가 배울 점은 끝이 없다"고 말했다.

제 49회 동구 아카데미 강연자로 나선 박 소장은 강연에서 대전만한 크기의 브라질 지방도시인 '꾸리찌바'가 30여년에 걸쳐 공무원과 시민들에 의해 어떻게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생태도시가 됐는지를 설명했다.

그는 "꾸리찌바시는 지하철 건설과 대규모 재개발 사업이 도시의 발전이라는 선진국의 개발형태가 브라질의 지방도시에 맞지 않다고 믿고 자신들만의 방법으로 도시를 가꿨다"면서 책에 서술한 브라질의 지방도시 꾸리찌바의 정책들을 소개했다.

박 소장은 ▲1인당 53㎡(16평)으로 선진국 도시보다 넓은 녹지 면적 ▲지하철 건설 비용의 약 200분의 1의 예산으로 버스전용도로를 만드는 등 교통대책 수립 ▲재활용품을 학용품과 식료품 등으로 맞바꿔주는 '녹색교환' 프로그램 ▲시민과 공무원이 하나 돼 일군 빈민촌 주택 개량 사업 등 꾸리찌바만의 정책을 소개했다.

박 소장은 특히 "국가와 도시의 비약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특별한 지도자가 필요하다"며 "이는 꾸리찌바의 시장을 지내고 현재는 피라나주의 주지사인 '자이메 레르네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소장은 또 "현재 지구촌은 금융·기후·석유 등 3대 위기에 직면해 있다. 석유위기와 기후위기는 상호 연관이 있으며 이는 '저 탄소 녹색 성장'을 바탕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자전거 타기 등을 활성화하는 등 석유 사용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박 소장은 '한국형 지방자치의 청사진', '꿈의 도시 꾸리찌바', '지금은 자동차를 길들일 때' 등 환경관련 책을 다수 서술한 환경운동가로 유명하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U대회 유치 기원 서구민 건강 걷기대회

29일 광주시 서구 상무시민공원에서 열린 '2015 U대회 광주유치 기원 서구민 건강 걷기대회'에 참가한 시민들이 출발신호와 함께 상무시민공원을 빠져나오고 있다. 광주시 서구 U대회 범시민지원추진협의회 주최로 열린 이날 행사엔 김영진 국회의원를 비롯한 전주언 서구청장 등 1천여 명이 참가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부모가 솔선수범 보여줘야"

고경주·흥주 차관보 키워낸 전혜성 박사

"부모가 자식들에게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에서 차관보급에 나란히 지명된 고경주(57·하워드 고), 고홍주(54·해럴드 고) 형제를 키워낸 어머니 전혜성(80) 박사의 체험적 부모관이다.

장남 고경주씨는 보건부 보건담당 차관보에, 삼남 고홍주씨는 차관보급인 국무부 법률고문에 지명돼 상원의 인준청문회만 통과되면 한인출신으로는 처음으로 미 행정부에 차관보급 동시 입성이라는 신기원을 열게 된다.

오바마 정부의 이번 발표 이전에도 전 박사는 요즘 말로 '엄친아'을 길러낸 어머니의 대명사격이었다. 예일대 교수를 지낸 전 박사는 슬하에 4남 2녀를 두었다.

전 박사는 "작고한 남편은 한국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뒤쳐지지 않게 열심히 일해야 한다'며 아이들이 공부하는데 신경을 쓰고 직접 가르쳤다"면서 "남편과 번갈아 가면서 자녀들을 돌봤는데 부부가 같이 자녀를 길렀다는게 장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정직하고 도덕적·윤리적 기준을 지키면서 여러 모로 세계적인 안목을 갖고 살아야 한다는 것과 동시에 한국 사람으로서 긍지도 강해야 하기 때문에 '한국 정신'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이미자 가수 50주년 기념 그림 에세이 펴내

가수 이미자(68)가 가수활동 50주년을 기념해 그림 에세이 '동백 아가씨'를 펴냈다. 이미자는 이 책에서 살아가며 경험한 잊지 못할 일화를 진솔하게 전하고자 했다. 지난 몇 년 동안 틈틈이 쓴 육필 원고를 책으로 묶었으며, 글 18편마다 화가 전용성의 따뜻한 그림이 함께 하고 있다. 그는 국내 대중가요에 대한 생각도 전했다. 일본의 엔카와는 차별화된 독특함에 대해 강한 자부심을 드러낸다. 아울러 그는 '동백아가씨'로 대단한 인기를 누리던 시절 베트남 위문 공연을 갔을 때 연병장을 울음바다로 만든 추억을 비롯해 대표곡들이 줄줄이 금지곡이 됐던 사연 등을 들려준다. /연합뉴스

시니어클럽협회 감사에

김년두(62) 전남과학대 교수가 한국 시니어클럽협회 제5대 감사에 취임했다.

언론인 출신인 김교수는 협회 초대 및 3, 4대 감사를 지냈으며 곡성 시니어클럽 관장을 맡고 있다.

/곡성=김계중기자 kjkim@

'비운의 기업인' 양정모 전 국제그룹 회장 별세

양정모 전 국제그룹 회장이 29일 오후 별세했다. 향년 79세.

양 전 회장은 1940년대 부산에 차린 고무신 공장을 1980년대 재계 서열 7위의 '국제그룹'으로 키운 재계의 대표적 '자수성가형' 기업인이었다. 그러나 1985년 전두환 정권 아래 그룹이 해체되면서, 주력 계열사였던 국제종합건설과 동서증권은 극동건설그룹에, 나머지 계열사와 국제그룹 사옥은 한일그룹에 각각 넘어갔다.

이후 양 전 회장은 정부를 상대로 국제그룹 해체가 부당하다며 위헌 소송을 벌여 승소했지만, 이 과정에서 정관계 로비자금 유포 사건 등에 휘말리고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결국 그룹 재건의 꿈을 이루지 못했다.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 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062) 2200-628 FAX (062) 222-4938, 222-4918

화촉

▲정춘님씨 장남 전성만(금파공고 교사)군 천 경(전 동부교육청 관리국장)·홍애순씨 장녀 효정(금호고 교사)양= 4월4일(토) 오후 1시 40분 메리어트웨딩홀 1층(에매랄드홀)

▲문성철(동부경찰서 수사과)·이순옥씨 차남 종현군 김용만·정영자씨 장녀 태영양= 4월12일(일) 오페라하우스 3층(그랜드특실)

동창·동문회

▲광주시행정동우회(회장 나무석) 총회= 31일(화) 오전 11시 화정동 국민생활관 1층. 062-371-5117.

▲송원고 총동문회(회장 김영문) 4월 월례회의= 4월3일(금) 오후 7시 상무지구 센트럴 관광호텔 3층 카네이션홀. 011-212-2900.

▲영암 구림초교 제49회 동창회(회장 신원장)= 4월4일(토) 오후 5시 영암 인지식당. 010-8200-8282.

▲광주사대부중 제4회 동창회(회장 전성수)= 4월4일(토) 오후 6시 금남로 유명회관. 062-512-5574.

향우회

▲재광 순창 향우회(회장 공병철) = 30일(월) 오후 6시30분 대인동 싱싱전어회관(대연회장) 010-3624-0030.

종친회

▲흥덕(흥성)장씨 광주·전남 종친회(회장 장계환) 초의선사(흥덕장씨) 유적지(무안군 삼향면) 순례= 4월2일(목) 오전 11시 종친회 사무실 앞 출발. 011-618-7929.

알림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희귀화폐 전시회=3월31일까지 광주우체국 1층로비, 3월10일~4월10일까지 남광주역 역무실 앞. 011-604-6132.

▲습관성 도박(경마, 인터넷 도박, 사행성 오락게임, 주식 등) 관련 전문상담 치료실시=본인 및 직계가족 포함. 상담치료와 입원치료 전액 무료. 전문심리상담가와 임상전문가가 직접 상담. 광주심리상담연구소. 062-527-3400, 3403.

▲광주 여성의 전화 무료 상담 및 법률·의료비 지원=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직장내 성차별, 이주여성 문제 등 상담. 062-363-0442~3.

▲광주종합사회복지관 아동가족상담센터 무료상담=아동심리적 발달· 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미술치료, 언어치료, 자녀양육상담. 062-264-4370, 5308.

모집

▲골드윈 여성 팝스 중창단 모집=노래에 관심과 자질이 넘치는 여성으로 공연활동이 가능한 분. 문화예술연대 '누림' 011-638-0141.

▲원불교 문화센터 회원 수시 모집=서예, 요가, 다도, 노래교실, 생활영어, 규방공예 등, 쌍촌동 원음방송국, 062-232-7223~4

▲북구 골든벨 축구클럽 동호회원 모집=즐겁게 운동할 수 있는 분. 20세 이상, 선수출신 환영. 010-3608-1060.

▲광주 두암 태권도 체육관 여성요가부 모집=요가를 배우고 싶으신 분 모집. 관장 박성택. 010-3636-1758.

▲이발기술 배우실 분 무료로 전수해 드림=북구 우산동 덕성이발관. 062-524-0680.

▲어린이 건강교실(기관지 천식, 비만, 아토피, 어린이 질병)=매일 오후 4시~6시. 봉선동 연아볼링장 건물 1층. 062-651-1175~6.

▲광주 YMCA 내인생의 자서전 학교 2기 모집=평범한 이들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정리할 수 있도록 돕는 학교. 기간 4월 7일~11월 매주 화·목 오전 10~ 12시. 대상은 어르신 20명(선착순). 062-234-0074, 062-232-6131

▲'마늘 죽염 건강요법' 주민건강교실=매월 둘째주 금요일 저녁 7시. 남구 봉선동 연아볼링장 1층·인산죽염광주지사. 062-651-1175~6.

▲한국마사회 광주지점 문화교실 무료 수강생 모집=노래교실(화·수·오후 2시), 꽃꽂이교실(수·오전 10시), 탁구교실(수·오후 2시), 자율탁구교실(화~목·오전 10시), 영어교실(화·목·오후 4시). 062-410-5000.

부음

▲정순례씨 별세 전용선(사업)·용철(KBS근무)·영림·영숙·점숙·영란·명란·영심씨 모친상 김동호(광주일보 동부취재본부 본부장)·김귀수(사업)·장동규(사업)·김진호(농협)·구해모(제일토건)씨 빙모상= 발인 30일(월) 광주 연세병원 특실분양소. 062-512-4444

▲위인량씨 별세 송환씨 부친상 = 발인 30일(월) 서광주장례식장 2분향소. 062-351-4444

▲유영순씨 별세 나승일·승용(미래에셋)·승예·승이·승자씨 모친상 = 발인 30일(월)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1분향소. 062-231-8901

▲김민수씨 별세 기태·원천·원오·원기·현남·현자·현애·원자씨 부친상= 발인 30일(월)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5분향소. 062-231-8905

▲김진임씨 별세 강권환·권현·견동·중군·선자·성숙·성애씨 모친상 = 발인 30일(월) 그린장례식장 10분향소. 062-250-4410

▲이수임씨 별세 신민호·민범·민권·민태·민택·민국씨 모친상= 발인 31일(화) 그린장례식장 9분향소. 062-250-4409

▲박충서씨 별세 찬오·찬식·찬근·찬주·시자씨 부친상= 발인 31일(화)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3분향소. 062-231-8903